

# 시조 다성(多省)

字명원(明遠)

號삼광(三光)

금자광록대부

삼중대광보국

상주국

동평장사

삼한벽상공신

신임 3000호

남평개국백

壽98

諡무성(武成)

墓실전으로

후손들이

힘을 모아

1993년

문바위 옆에

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모시고 있다

祭享 매년

陽3월20일

配享 장연서원

陰9월중정일

시조님은 아득히

먼 옛날 지금의

전남 나주군

남평읍 풍림리

산 112

사자산 기슭의

장자지 연못가에

있는

문바위 위에서

탄생하셨다。

夫人 김씨 신라왕손

號정순신의

貞順神毅

## 시조님 탄강설화

시조님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비록 전하지 않지만, 매우 신비로운 탄강설화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왔다. 시조님 관련 기록은 1589년 대동운부군옥, 만력 연간에 작성된 모계가첩에도 나타나며, 시조님 탄강설화는 1597년에 채록되어 사성강목에 수록된 내용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추정된다. 이후 시조님 탄강설화는 문중 기록인 가승과 신해보 등 족보는 물론 1760년경 작성된 관찬지리서인 여지도서에도 나타난다. 다음은 시조님의 탄강설화 중, 남평 문씨 최초의 족보인 1731년 신해보에 수록된 내용이다.

### 시조 무성공전

세상에 전하기를 호남에는 남평군이 있는데, 남평군의 동쪽에 큰 연못이 있고 그 연못가에는 높이가 천 길이나 되는 높은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군주가 그 바위 아래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오색구름이 일어나 바위 위를 감싸더니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군주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 사다리를 가져오게 하여 올라가 살펴보도록 하였더니 석함이 있었으므로 쇠줄로 묶어서 석함을 바위 아래로 내려 함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았더니 그 속에는 피부가 매우 깨끗하고 용모가 기이한 어린아이가 있어 데려와 거두어 길렀다. 나이 다섯 살에 문사에 자연 통달하고, 무략이 뛰어났으며, 총명하고 깨닫는 것이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였으므로 문(文)을 성으로 삼고, 다성(多省)을 이름으로 하며, 명원(明遠)을 자(字)로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시조님을 일러 문군은 아는 것이 밝기가 해와 달과 같고, 맑기는 별과 같아 호를 삼광(三光)이라고 했다. 14세에 대사도, 18세에 대사마, 대장군이 되었다. 삼중대광보국, 삼한벽상공신, 태사태부에 추증되었으며, 남평개국백에 봉하였다. 98세에 돌아하시니, 시호는 무성공이다.

### 始祖 武成公傳

世說 湖之南 有南平郡 郡之東 有大澤 澤畔 有巖屹立千丈 郡主 一日 遊於其下 有五雲融聚於巖上 忽聞嬰兒之聲隱隱而來 郡主心異之 卽令構架使人登視之 有石函 以鐵索繫之 而拋下開函視之 中有小兒 肥膚玉雪 容兒奇異 遂收養之 年甫五歲 文思自然通達 武略迢邁 聰明頓悟 達於事物之理故 因 以文爲姓 多省爲名 明遠爲字 時人稱之曰 文君 昭若日月 清如星辰 號爲三光 年十四爲大司徒 十八爲大司馬 大將軍 三重大匡報國 三韓壁上功臣 封南平開國伯 大師大父 壽九十八 諡武成公

### << 시조님 설단 과정 >>

1. 1990년 남평문씨대종회 시조 무성공 설단건립추진위원회 구성  
회장 문용호, 위원장 문병식 예산 : 73,017,000원
2. 1992년 3월 31일 대종회 정기총회. 설단 조성 허가필 보고
3. 1993년 6월 제단비 설치, 성금 모금에 일가 370여명 참여
4. 성금 모금에 일가 370여명 참여.
5. 1994년 3월 20일 최초로 단제를 모심

諡壽83  
墓89  
實9  
封영평개국백  
상부  
태사  
영동정  
상주국  
찬성사  
문하시중  
원대손  
탁  
偉  
倬

중시조	2世	3世	4世
<p><b>중시조</b> <b>익</b> 翼</p> <p>남평공씨로 사서에 처음 나타나기 분으로 남평문씨를 고려 명문대 반열에 올려 놓은 중흥조이다.</p> <p>사서에 나타나는 기록을 살펴보면,</p> <p>1095년 (현종원년) 자는 중승려 혜진이 송에서 도착하니 왕이 근신문인에게 명하여 수레와 일산을 갖추어 혜진을 맞이하여 보제사에 거처하도록 하였다</p> <p>1098년 3월 태자부의 정5품 좌찬선대부에 임명되었으며, 12월 정기인사에서 종4품 급사증으로 승진되었다.</p> <p>1099년 10월에 고주사점 밀진사로 요나라에 가서 원자 책명일을 요청하였다</p> <p>1102년에 종3품 진주목감사로 서북면병마사에 임명되었다</p> <p>1103년에 정3품 우산기상사에 임명되었다.</p> <p>사서의 기록은 여기에서 그치나 족보에는 다 많은 기록이 나타난다.</p> <p>이하 족보의 기록을 살펴보면,</p>	<p><b>주공인공인</b> 初名公美(公美) 諡忠의(忠毅) 生</p> <p>卒 1137년 12월</p> <p>1115년 예종(재위 1105-1122) 10년에 호부시랑으로 왕자와 함께 송에 사신으로 가려고 하니 중서문하성의 시신과 추밀원의 승제 등이 순천관의 나빈정에서 잔치를 베풀어 작별하였으며, 왕이 내시 임정침을 보내 친히 지은 시 1수를 보이고 아울러 술과 과일도 하사하였다.</p> <p>귀국하면서 송나라의 아악(대성안)과 악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도인하여 고려의 아악을 거쳐 조선의 제례악으로 발전하였으니 우리나라 음악사에 큰 공헌이 있었다.</p> <p>1116년 11월에는 왕이 청연각에 거둥하여 우부승선 문관공미 드음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하고는 관한 시를 읊었다.</p> <p>인종(재위 1122-1146)조에 이 자점의 모함으로 유배되었다가 1127년 이부상서로 복직하였다. 예부상서 지제고, 동지추밀원사, 판이부사를 역임하였다.</p> <p>1131년에 검교사도중서시랑평장사 서경유수사를 역임하였으며, 1133년에 판상서병부사 감수국사에 임명되었으나</p> <p>1136년 개경파에 의하여 모함당해 천거하였다는 이유로 판국자감사로 좌천되었다가 다음 해인 1137년 12월 사망하였다</p> <p>夫人은 해주최씨 충정공 최사추(思誨)의 따님이며 문헌공 충(冲)의 증손녀이다</p>		

증시조	2世	3世	4世
<p>고려문종(재위 1046-1083)조에 등제하여</p> <p>선종(재위 1083-1094)조에 정3품 좌승선점 종4품어사대사에 승진하였다</p> <p>의종의 총회인 만춘의 사저가 음창하고 화려함을 아뢰다가 왕의 노역을함을 사서 동경유언으로 좌천되었다.</p> <p>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숭상하나 공만 홀로 그러하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 사람들이 크게 쓰일 것으로 바라보았다.</p> <p>1098년(숙종 3년) 3월에 3월에 정5품 좌찬선대부가 되었으며 12월에 종4품 급사증승이 되었다.</p> <p>1099년 10월에 밀진사가 되어 요나라에 가서 원자책명을 청하고 돌아오니 정2품 좌복야에 임명되었다</p> <p>1102년 임묘의 역류에 종3품 직판하상사와 서북면지병마사에 임명되었다.</p> <p>강종(재위 1211-1213)조에 정2품 평장사에 승진하였다.</p> <p>상주국 영양정평을 추증하고 공신공에 봉하였다.</p> <p>諡(敬節)</p> <p>夫人유(柳)씨</p> <p>증시조님의 아드님 4형제의 화와 서차는 일제강점기 때 박전된 화공원, 화공유 두부의 묘지명의 근거와</p> <p>1995년부터 화공원, 화공유, 승가관, 화공유의 서차로 수정하였다.</p>	<p>구공원公元</p> <p>生1084년 卒1156년 12월</p> <p>처음 부음(부)으로 관직에 나아갔다.</p> <p>1114년(예종 10년) 급제하였다.</p> <p>인종 때 유정언 지제고</p> <p>1130년(인종 8) 전중시어사로 당시 폐단을 상언하여 시정하도록 했다.</p> <p>1148년(의종 2) 어사대부 추밀원지사 삼사판사가 되었다.</p> <p>1150년 지공거로 과거를 관장하였다 참지정사를 역임하였다.</p> <p>1151년 판형부사, 중서시랑평장사 판이부사, 수사공을 순차로 역임하다 1152년 서경유수사를 거쳐 문하시랑동평장사로 치사했다.</p> <p>享年 73세</p> <p>諡(貞敬)</p> <p>配(후의종묘전)</p> <p>일제강점기 당시 공의 묘지명의 발견되었으나</p> <p>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현재까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p> <p>夫人이씨 증추원사 이의의 따님</p> <p>구체적인 기록으로는 문종유 묘지명과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나타난다.</p> <p>특히 1149년 무렵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영주 청도의 유단사비에 큰스님 24명의 법명이 나타나는데, 대선사 2명의 이름 선사 13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10번째의 선사가 관의 법명이 나타난다.</p>	<p>女최숙문 崔淑問 전종내급사</p> <p>女박황 朴璜 도암서령</p> <p>女조시언 趙時彦 시대관서령</p> <p>女최언방 崔彦方 사경원판관</p>	

증시조	<div data-bbox="1305 123 1412 273" data-label="Text"> <p>증시조 익 翼</p> </div>
2世	<div data-bbox="1321 383 1374 600" data-label="Text"> <p>구공응公裕</p> </div> <div data-bbox="1123 407 1318 893" data-label="Text"> <p>후에 고수(顧壽)로 개명하였다. 字는 함적(元適)이다. 후에 순수(順壽) 生 1088년 卒 1159년 예종조에 등제하여 정언인이 되다 인종</p> </div> <div data-bbox="142 407 1128 911" data-label="Text"> <p>즉위(1122)년에 이자겸의 모함으로 합문지후 문공원을 유배보내다 5년(1127) 이자겸이 귀양가서 사망하자 합문지후로 복직되다. 1128년 전중내금사 지제고 상서호부 원외랑 1129년 예부낭중, 전주목부사 금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다 좌사원외랑 충사 관수찬관 1132년 시어사 태화궁 현관글씨를 쓸 것을 명하였으나 옳지 않다며 거부 1136년 예빈소정으로 황주목부사 1140년 비서소감 동양시학사 1141년 병부시랑 1143년 우간의대부 형부시랑 동양시독학사 상서좌승 지어사대사 의종 원년(1147) 국자감 대사성 보문각학사 지어사대사 문공응이가 3일간 합문에서 엎드려 시사를 논하였다. 1149년 형부상서 수문전학사 지제고 1151년 서정지유 1152년 형부상서 병부상서 권삼사사 1153년 태자좌참사 형부상서 집현전학사 지제고겸 태자빈객 검교태자태보 1155년 동지추밀원사 판삼사사 1156년 지문하성사</p> </div>
3世	<div data-bbox="1321 949 1374 1167" data-label="Text"> <p>구극점克謙</p> </div> <div data-bbox="1182 969 1318 1480" data-label="Text"> <p>字덕병(德柄) 生 1122년 卒 1189년 처음에 백부 동양인의 유서로 산정도감판관의 보임된 후, 계속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당시 제도에 남색 참외관은 과거를 3번밖에 볼 수 없어 이를 5번 볼 수 있도록 청원하여 관철시켜 이를 한두번의 법규로 하였다. 마침내 의종 12년(1158)에 37세로 지공거 추밀원사 이양승 동지공거 우승선 이공승이 주관하는 과거에서 문과 급제하였다. 1163년 8월 좌정언으로 공철 안의 사건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오히려 황주판관으로 좌천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잘못으로 면직되었으나 의종은 오히려 배척하여 진주판관으로 다시 좌천시켰다. 1170년 3월 전중내금사. 신하들이 문극점의 공은 신하이드로 계속 좌천시켜 외직에 있게 하여 언로를 막는 것은 마땅한 처사가 아니라 하여 마지못해 전중내금사를 제수한 것이었다. 명종 원년(1170) 우승선 어사중승 8월 전중부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죽였으나, 공이 문신들이 신하이드로 오히려 조용되었으므로 문신들과 무신들이 말도 안되게 1173년 4월 밤 늦도록 술좌선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간하기를 전왕이 폐위된 까닭을 정제하지 않 수 있었습니까라고 하여 안으로 들 하였다. 이종의는 노하여 문극점을 꾸짖었고 이의방은 기생들을 데리고 중방 으로 들어와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p> </div>
4世	<div data-bbox="1321 1509 1374 1727" data-label="Text"> <p>구후식侯軾</p> </div> <div data-bbox="1182 1509 1246 1727" data-label="Text"> <p>↓下 구유필惟弼</p> </div> <div data-bbox="1059 1509 1128 1659" data-label="Text"> <p>↓下 나이린(李璘)</p> </div> <div data-bbox="134 1509 517 1547" data-label="Section-Header"> <p>&lt;&lt; 충숙공 아드님 곤계서차 &gt;&gt;</p> </div> <div data-bbox="134 1554 1038 1800" data-label="Text"> <p>충숙공 아드님에 대한 기록은 1451년에 간행된 고려사에 휘 후식과 유필로 기록되어 전한다. 그런데 1736년 병진보를 간행하면서 우징이 충숙공 아드님 서차는 송암수보, 즉 1597년에 작성된 사성강목에 휘 유철, 유필, 후식의 순서로 써서 전하며, 고려사에는 유철은 없고 후식, 유필로 써서 전하므로 충숙공 아드님 곤계서차를 알 수 없으니 분파각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div> <div data-bbox="134 1807 1038 2018" data-label="Text"> <p>이후 일부에서는 우징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부에서는 충숙공 아드님 곤계서차에 대하여 분파각서를 주정하여 왔다. 예전에는 대부분 사성강목을 접할 수 없어 논란이 있어 왔었으나, 경상대학교에서 사성강목 원본을 발굴하여 2002년 영인본으로 간행함으로 인하여 지금은 우징이 인용한 사성강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p> </div> <div data-bbox="158 2018 325 2056" data-label="Text"> <p>이하 계속</p> </div>

증시조	증시조	증시조
익 翼	2世	3世
공은 1156년에 병이 들어 병선에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1159년 2월에 72세로 돌아가셨다. 공은 필명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표향사 보현사 비문은 공의 필적으로 지금도 전한다. 남평읍지에도 사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전한다. 諡(정경) 敬靖 配享남평장언서원 夫人장단 한씨 父평장사 무열공 한안인(韓安仁) 祖시랑 규(圭) 女김장 金璋 시랑 女김윤석 金允碩 찬성사 女김국진 金國珍 평장사 女민수 閔修 우보결	공은 1156년에 병이 들어 병선에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1159년 2월에 72세로 돌아가셨다. 공은 필명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표향사 보현사 비문은 공의 필적으로 지금도 전한다. 남평읍지에도 사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전한다. 諡(정경) 敬靖 配享남평장언서원 夫人장단 한씨 父평장사 무열공 한안인(韓安仁) 祖시랑 규(圭) 女김장 金璋 시랑 女김윤석 金允碩 찬성사 女김국진 金國珍 평장사 女민수 閔修 우보결	공은 1156년에 병이 들어 병선에 있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1159년 2월에 72세로 돌아가셨다. 공은 필명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표향사 보현사 비문은 공의 필적으로 지금도 전한다. 남평읍지에도 사실이 상세하게 수록되어 전한다. 諡(정경) 敬靖 配享남평장언서원 夫人장단 한씨 父평장사 무열공 한안인(韓安仁) 祖시랑 규(圭) 女김장 金璋 시랑 女김윤석 金允碩 찬성사 女김국진 金國珍 평장사 女민수 閔修 우보결

### 충숙공 아드님 곤계서차 설명 계속

사성강목에는 우징이 주장한 충숙공 아드님 서차, 즉 휘 유철, 유필, 후식의 순서라는 기록은 없다. 오히려 사성강목은 목록에서 서차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우징이 분파각서를 주장하면서 인용한 내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2012년 대종회 종무위원회에서는 충숙공 아드님 곤계서차에 대하여 분파각서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충숙공 아드님 서차는 고려사 기록에 따라 휘 후식, 유필의 순서로 기록하고, 유철은 충숙공 아드님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충숙공 아드님 곤계서차에 대하여 분파각서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분파각서를 주장하기 이전에 1597년 사성강목과 1629년 파산가승 그리고 1736년 병진보 등 관련 문헌을 먼저 일독하기를 권한다. 사성강목은 서차를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파산가승은 비록 사성강목의 영향을 받아 충숙공 아드님 형제를 3형제로 기록하고 있으나 서차에 있어서는 고려사의 기록과 같이 휘 후식, 유필의 순서로 기록하고, 이어서 유철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끝>

	<p>증시조 익 翼</p>
2世	<p>공공裕</p>
3世	<p>극순克純</p> <p>구보에는 의종조에 내사인 명종조에 전증내급사 연안 이씨 1605년 을사보에 수록된 증호구에 의하면 극창(克昌) 전증내급사로 나타난다</p> <p>극이克易</p> <p>女正극 鄭拯 女윤자고尹子固 女이세창李世昌</p>
4世	<p>정식廷軾</p> <p>이규보 저서인 동국이상공후집 제10권 고을시에 오월 어느날 문채주 정식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내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p> <p>다음은 이에 대한 이규보가 사려한 시이다.</p> <p>오십여 년 교유하여 교분이 두터웠는데 五紀同遊投分篤 삼년 만에 비로소 나를 찾아주었구려 三年方始枉驂來 또한 가지고 온 술 꽃다워 즐거워라 箇中但喜携芳醞 서너 잔 들고 나니 원한 사라지네 宿怨渾消數四杯</p> <p>효식孝軾 ↓↓下</p>



4世	<p>이공공(李公公)그점</p> <p>주후시(周侯軾)</p> <p>諡號충렬(忠烈)</p> <p>해동명사</p> <p>11193년</p> <p>(미증) 8월</p> <p>이부시랑</p> <p>문후식(門侯軾)</p> <p>을 파견하여</p> <p>진봉하다.</p> <p>여기서 門은</p> <p>文의 오류이다</p> <p>고려사</p> <p>1198년</p> <p>1월 대부경</p> <p>문후식을</p> <p>동북면지병마사</p> <p>로 삼다.</p> <p>구보에</p> <p>대광보국</p> <p>상조국 평정사</p> <p>配첩원 최씨</p> <p>父평정사</p> <p>문의공 선(諡)</p> <p>祖평정사</p> <p>유청(惟淸)</p> <p>墓남평응지동</p> <p>이라 하나</p> <p>실전하다</p>
5世	<p>주정(周挺)</p> <p>諡號충익(忠益)</p> <p>찬교사</p> <p>보문각 및 진원전</p> <p>제학</p> <p>고종 때</p> <p>贈대광보국</p> <p>상조국 평정사</p> <p>配문화 유씨</p> <p>墓상동</p> <p>父평정사</p> <p>성후(成后)</p> <p>墓응지동 同麓</p> <p>이라 하나</p> <p>실전이다.</p>
	<p>주중연(周仲連)</p> <p>백사(白史)</p> <p>상조국</p> <p>문하시랑</p>
	<p>주장영(周章永)</p> <p>문과급제</p> <p>은거불사</p>
6世	<p>주득(周得俊)</p> <p>구보에</p> <p>字명량(明良)</p> <p>諡號의안(毅安)</p> <p>원종 4년에</p> <p>람라해전을</p> <p>몰리치니</p> <p>봉인대부</p> <p>판도판서에</p> <p>배명하시고</p> <p>인거상행하다</p> <p>충렬왕조에</p> <p>예부상서를</p> <p>배명하시고</p> <p>별세함</p> <p>配광산 김씨</p> <p>父평정사</p> <p>명진(銘鎭)</p> <p>墓단계현 동쪽</p> <p>오좌라 하나</p> <p>실전으로</p> <p>보성 회천면</p> <p>회령리</p> <p>삼장촌 뒤</p> <p>가랑동에</p> <p>설다하고</p> <p>후祀</p> <p>陰3월20일</p> <p>삼장암을</p> <p>삼락제(三樂齋)</p> <p>에서 제사를</p> <p>모신다.</p>
7世	<p>주극(周克儉)</p> <p>구보에</p> <p>字정부(貞夫)</p> <p>諡號정렬(靖烈)</p> <p>고려 충신왕 때</p> <p>금제</p> <p>좌정언 좌사의</p> <p>충국왕 원년에</p> <p>침지판도판서</p> <p>좌사의대부</p> <p>좌사</p> <p>광정대부가</p> <p>되시다.</p> <p>김기감</p> <p>판정응시사</p> <p>개성유을</p> <p>지내시다</p> <p>壽67세</p> <p>관음대부</p> <p>문하시랑 상조국</p> <p>평정사에</p> <p>추증되다</p> <p>配안동 권씨</p> <p>墓지리산 남쪽</p> <p>기습 자좌라</p> <p>전하나</p> <p>실전하다</p> <p>父평정사 영(燁)</p>
8世	<p>주윤각(周允恪)</p> <p>구보에</p> <p>字의여(義汝)</p> <p>고려 충국왕 때</p> <p>등제</p> <p>하림학사</p> <p>충해왕조에</p> <p>봉인대부</p> <p>삼사우사</p> <p>문한학사로</p> <p>치사하시다.</p> <p>광정대부</p> <p>판정이사</p> <p>대광해원을</p> <p>증하시다.</p> <p>配밀양 박씨</p> <p>墓단계현 북쪽</p> <p>십여리에</p> <p>유좌라 하나</p> <p>실전하였다</p> <p>父대자공</p> <p>태후(泰后)</p>
9世	<p>주수선(周叔宣)</p> <p>구보에</p> <p>字덕방(德芳)</p> <p>號청도(淸道) 선생</p> <p>諡號충정(忠貞)</p> <p>생종렬왕 33년</p> <p>1307년</p> <p>충정왕 3년</p> <p>1351년</p> <p>등제 하림학사</p> <p>좌정언 지제교</p> <p>사간원헌납</p> <p>공신(원종) 3년</p> <p>임인년에</p> <p>(1362)에</p> <p>정승대부</p> <p>판정교시사</p> <p>보문각 제학</p> <p>관제림찬문사</p> <p>계묘년에</p> <p>(1363)</p> <p>동정사록</p> <p>후미상</p> <p>향년 63세</p> <p>관음대부</p> <p>贈문하시중</p> <p>配함양 조씨</p> <p>贈삼한국대부인</p> <p>墓가음현 치소</p> <p>동쪽 십여리</p> <p>유좌라 하나</p> <p>실전으로</p> <p>보성 회천면</p> <p>가랑동에다을</p> <p>설치하고</p> <p>陰3월20일</p> <p>삼락제(三樂齋)</p> <p>에서</p> <p>제사를모신다</p>
10世	<p>주익점(周益謙)</p> <p>충혜공파</p> <p>파조</p> <p>↓下</p> <p>주익점(周益漸)</p> <p>충선공파</p> <p>파조</p> <p>↓下</p> <p>주익부(周益浮)</p> <p>↓下</p> <p>주익하(周益夏)</p> <p>↓下</p>

	이이공공가계 子 후신 侯軾	4 世
<p>  5세 정(挺) 설명 계속            그러므로 무진신보가 상계 계보를 기록함에 의계보를 제외하고 기존의 기록에 따라 기록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의계보 9대에 신해보의 5세 휘 정(挺)과 동일한 휘 정(挺)이 수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의계보는 신해보의 5세 휘 정(挺)을 19대 휘 탄(誕)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무진신보는 이에 대하여 5세 휘 정(挺) 주석에서 “살펴보니 의계보(구첩)에 휘 정(挺)을 휘 탄(誕)으로 정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고 기록하였다.         </p> <p>           그 후, 무진신보 간행에 참여하였던 계항이 1819년에 삼우당실기를 간행하면서 아예 기존의 정(挺)을 배제하고 의계보의 탄(誕)을 표제명으로 사용함으로써 휘 정(挺)과 휘 탄(誕)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1827년 계항이 간행한 후정해보를 비롯하여 계항의 후손들이 간행한 족보에서 삼우당실기의 기록을 이어 받고, 1870년 경오보부터 1955년 을미보까지 의계보마저 수용함으로써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계속         </p>	子 정 挺	5 世
	子 증연 仲連 백사옹신 상옥주국 문하시랑	
	子 장영 章永 문과급제 은거불사	
	子 득호 得豪 子 득의 得儀	6 世
	子 성길 聖吉 子 성익 克誠 子 증중 克重	7 世
	女동래 정응(鄭昇) 녹사 子 윤무 允武 참지내급사 子 윤신 允愼	8 世
	子 정사종(司宗) 예판	9 世
	子 정수홍(守弘) 이판 子 정수성(守城) 제학	10 世



<p>5세 정(挺) 설명 계속</p> <p>1956년 남평문씨대종회가 창립되고, 의제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의제보 휘 탄(誕)을 배제하고 표제명을 휘 정(挺)으로 환원하면서 휘 탄(誕)도 함께 기록하였으나, 지금도 각 문중에서 간행하는 족보 중 일부는 아직도 휘 정(挺)과 휘 탄(誕)에 대한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t;끝&gt;</p>	<p>이이공공가계도점 子 후식 侯軾</p>	4世
<p>&lt;&lt; 7대·9대설 &gt;&gt;</p> <p>충숙공 휘 극점 선조님이 충선공 휘 익점 선조님의 7대(조) 혹은 9대(조)인지에 대한 양설이 있다. 이는 신해보에 수록된 6세 휘 증연과 7세 휘 장영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다.</p> <p>위 두 논란의 차이점은 의제보 인정여부에서 시작된다.</p> <p>남평문씨 최초의 족보인 신해보는 휘 증연, 휘 장영 두 분을 포함하여 3세 충숙공 휘 극점, 12세 충선공 휘 익점으로 기록하여 왔다.</p> <p>그런데 의제보에는 신해보의 6세 휘 증연, 7세 휘 장영 두 분의 기록이 없다.</p>	<p>子 정 挺</p>	5世
<p>이에 대하여 계항은 1827년 정해보에서 주장하기를, 의제보의 기록 중, 중시조님 위 상계 14대, 즉 의제는 믿을 수 없다고 한 반면, 중시조님 이하의 기록은 믿을 수 있다며 의제보의 기록에 따라 휘 증연과 휘 장영 두 분을 삭제한 족보를 작성하였다.</p> <p>이 것이 이른바 7대설 주장의 시작이다. 정해보 이후 계항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1851년 후신해보 이후 1955년 을미보까지 계항의 7대설에 따라 기록하였다. 특히 1870년 경오보 이후는 의제를 정계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p>	<p>子 증연 仲連 백사응신 상조극 문하시랑</p>	
<p>1956년 남평문씨대종회가 창립되고 의제보를 불채택함으로써 신해보에 따른 9대설로 환원하였으나, 2012년 대종회 종무위원회에서 다시 7대설로 환원·결정한 이후, 인터넷 대동보는 의제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7대·9대설에 있어서는 7대설을 따르고 있다.</p> <p>당시 종무위원회에서 7대설을 따르게 된 이유는,</p> <p>첫 째, 충숙공의 후손으로 같은 시대에 활동한 문달한은 6세손, 이성계는 7세손인 반면 문익점은 9세손으로 터율이 넓고,</p> <p>둘 째, 충숙공은 1122년생이며, 충선공은 1331년생이므로 7대설에 따르면 1세대가 약 30년인 반면, 9대설에 따르면 약 23년인데, 1세대는 대략 30년으로 보므로 7대설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lt;끝&gt;</p>	<p>子 장영 章永 문과급제 은거불사</p>	
<p>1956년 남평문씨대종회가 창립되고 의제보를 불채택함으로써 신해보에 따른 9대설로 환원하였으나, 2012년 대종회 종무위원회에서 다시 7대설로 환원·결정한 이후, 인터넷 대동보는 의제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7대·9대설에 있어서는 7대설을 따르고 있다.</p> <p>당시 종무위원회에서 7대설을 따르게 된 이유는,</p> <p>첫 째, 충숙공의 후손으로 같은 시대에 활동한 문달한은 6세손, 이성계는 7세손인 반면 문익점은 9세손으로 터율이 넓고,</p> <p>둘 째, 충숙공은 1122년생이며, 충선공은 1331년생이므로 7대설에 따르면 1세대가 약 30년인 반면, 9대설에 따르면 약 23년인데, 1세대는 대략 30년으로 보므로 7대설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lt;끝&gt;</p>	<p>子 득길 得傑 諡 양간(襄簡) 집현전태학사 평장사</p>	6世
<p>첫 째, 충숙공의 후손으로 같은 시대에 활동한 문달한은 6세손, 이성계는 7세손인 반면 문익점은 9세손으로 터율이 넓고,</p> <p>둘 째, 충숙공은 1122년생이며, 충선공은 1331년생이므로 7대설에 따르면 1세대가 약 30년인 반면, 9대설에 따르면 약 23년인데, 1세대는 대략 30년으로 보므로 7대설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lt;끝&gt;</p>	<p>子 원길 原吉 증랑장 配 함창김씨</p>	7世
<p>창도昌道</p> <p>정려를 세웠다 두서리에 영주군 망월면 정북 조정의 명으로 1434년 온전히 했다. 부자가 목숨을 굴복했으므로 왜적들이 배었더니 회들러 왜적을 뽑고 칼을 공은 살충을 베었다 왜적들이 굴복했으므로 부자가 목숨을 온전히 했다. 1434년 조정의 명으로 정북 영주군 망월면 두서리에 정려를 세웠다</p>	<p>子 재도 載道 평해군사 고려말 왜병들이 영주에 침입해 살인들을 자행하니 공이 아버지를 업고 산골에 들어가 숨었는데, 왜적이 찾아와 아버지를 쏘아 맞혔다 공은 살충을 베었다 왜적들이 굴복했으므로 부자가 목숨을 온전히 했다. 1434년 조정의 명으로 정북 영주군 망월면 두서리에 정려를 세웠다</p>	8世
<p>신좌臣佐</p> <p>금부판서 통진현감 女김숙량(金叔良)</p>	<p>子 구 龜 파조 諡 경양(敬襄) 좌의정 감천군에 봉하다 墓감천 대덕산 임좌</p>	9世
<p>수재秀才</p> <p>↓下 승록대부 병부상서 女안축(安軸) 生 1282 卒 1348년 흥녕군(興寧君) 諡 문정(文貞)공 祭享백운동서원 子안종기(宗基) 子흥녕부원군 안종원(宗源) 女몽원군 정양생 (鄭良生) 女이전(李畛) 임피현령</p>	<p>子 한영 漢英 ↓下 子신좌臣佐 ↓下</p>	10世

4世	이공공공공공 子 후시 侯軾	
5世	子 諱 諱 남제공파 파조 一諱 작(緯) 號 남제(南濟) 諡 사간(司簡) 封 가나(加那) 군 生 1160년 문장으로 세상에 명성이 있었다 명종조 대사간 1194년 대제학 왕명으로 탐라에 들어와 예악과 문물을 선화하였으므로 상주국 평장사 를 제수하다 墓 실전하여 남제공부터 9대에 이르기까지 추모하는 람을 제주시 애월면 하가리에 건립하고 4월5일에 추모제 올린다	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성씨부에 보성군 부성현 사람이 탐라에 와서 고씨에게 장가 들었다고 한다 제주도 입도조 配 탐라 고씨
6世	子 양부 陽夫 一諱 양부(陽富) 生 1176년 1193년 급제 1198년 참지정사 좌정언 문묘지략과 용기 를 모두 적하였다. 용종대 정종 계숙승과하여 병마대원주 되다 1208년 이모의 하관하면서 남해 삼중의 반드시 큰 나리가 있을 것이라며 나도 부사에게 명하니 그모가 평을 반돌여 나아갔으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 이모의 또 하관하면서 관하 자신 범의 되를 저드려 화가 가까이 왔다고 하였다. 1210년 부양부에게 특명을 내려 나해도 탐라국의 구사를 이끌고 출발하되 하였다. 1212년의 이모의 큰 구사명령을 공향	
7世	子 영희 永禧 통사랑이시다 配 탐라 고씨 선세추모탑 공향	
8世	子 신 愼 동지총관하시다 고려 충렬왕 때 원에 총관을 만들고 동지총관을 두다 나라의 연혁은 삼한은 임나라 부르고 고려는 탐라라 불렀고 조선은 제주라고 하였다 配 이씨	
9世	子 창우 昌祐 탐라왕자로 처음 봉작을 받았다 1270년 고려와 원의 반적 삼별초가 진도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1271년 려·원 연합군 이 토벌하니 적을 크게 이겼다. 자인한 괴수 김동정이 나머지 무리를 이끌고 와서 귀일현에 응거하였다. 1272년 귀일현 안팎으로 토벌을 추조하고 특히 원군하고 전고함을 믿어 날마다 더욱 건장할 수 없이 항상 출몰하여 노략질을 하니 삼천 전체가 텅 비게 되었다 마침내 공이 성주 고인단과 함께 고려에 사자를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10世	子 공제 公濟 탐라왕자로 세습하다. 1318년 초작 사옹 입복 금성 등이 구사를 모아 나을 일으키니 공이 거병하여 진압하였다. 원나라에서 이를 듣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 사실이 모라국서 여지승람 탐라지 탐라기년에 수록되어 전한다. 配 왕자부인 밀양 손씨 墓 선세추모탑 공향 1구를 두었다.	
11世	子 승서 承瑞 탐라왕자로 사직이 탐라지에 적다 탐라왕자 세습 왕자부인 配 왕자부인 신천 강씨 고려공민왕 17년 사직은 볼 수 없고 다만 가침에만 수록되어 있어 연표사적에 고찰할 수 없다 墓 선세추모탑 공향 4자를 두었다	
12世	子 신보 臣輔 사실이 국가기록에 있다 下 쪽	子 신필 臣弼 사실이 국가기록에 있다 下 쪽

4 世	이-고-우-기-기-정 구 후식 侯軾
5 世	구 착 諱 남제공파 파조 一諱자(緯)
6 世	구 양부 陽夫 一諱양부(陽富) 해설하영영영영영 알리니 대사마 대자온 상종구공신등 내렸다 금자광동국대부 동평장사 이부상서에 추증하고 특별히 가나군에 봉하였다. 諡장경(章敬) 동국대전과 한헌당집에 사신이 수록되어 전한다. 配부인 김씨 墓선채추모탑 구양
7 世	구 영희 永禧
8 世	구 신 愼
9 世	구 창우 昌祐 1273년 원종왕이 김방정에게 명하여 홍노등 평·원연합군 인 만병력이 보내와 함께 삼별초를 토벌하니 평정하니 원나라가 부사 이로 인하여 고씨가 세습하던 왕자작위가 끊어졌다. 세습되었다. 1294년 (충안왕) 20년 11월 왕의 통정감로 전어사관 와서 다 선조가 홍정(말) 가주(표) 아를(상) 모자(상) 신 하 모 관 수 피
10 世	
11 世	
12 世	

이공공(李公公) 子 후식(侯軾)	4 世
남제공파 子 착(諱) 파조 (諱 자(諱))	5 世
子 양부(陽夫) (諱 양부(陽富))	6 世
子 영희(永禧)	7 世
子 신(愼)	8 世
子 창우(昌祐) 동문선 탐라지 탐라기년에도 수록되어 있다. 配왕자부인 원주 원씨 配왕자부인 탐라 고씨 父왕자 탁(卓) 조왕자 신민 (信愍) 曾조왕자준(俊) 장인 왕자 탁은 후손이 없어 代王子하시다 선세추모탐 공향	9 世
	10 世
	11 世
	12 世

女완산  
이린(李璘)

女전희  
이윤관(李允寬)  
시랑  
子이양부(李陽茂)  
장군

子이의(李誼)  
子이신(李伸)  
○○○

	이공공(李公公) 子인필(仁弼) 惟弼 諡孝惠(孝惠) 공명종조에 추밀원사 좌산기상시 어사대부 고종조에 영록대부 판삼사 配광주(光州) 채(蔡)씨 父평장사 순희(順禧) 祭享남평 장언서원	4世
	子정(正) 証 諡貞敏(貞敏) 충렬왕조에 광정대부 검교추밀원사 配평강 채씨 양정(良靖) 공인규(仁揆) 祖평장사 정선(靖宣) 공점(楨) 曾祖평장사 경평(景平) 공송년(松年) 外祖재신 동주 최영(崔英)	5世
	子은실(允實) 允實 병부령하심을 파산가보에 전하다 享年24 配이씨 父근기감 순익(淳益)	6世
	子구(球) 球 승사랑 사온서 직장 配이씨 父대호근으로 치사하셨다	7世
女박전(朴全)	子경(璟) 璟 증대부 대구경 다성의용보리군신 贈삼중대광 문하찬성사 남평부원군 配문화 유씨 父시랑 당(塘) 祖시중 증성공 성비(成庇) 曾祖밀직 순(淳) 外祖평장사 의성 김영(金英)	8世
	子달한(達漢) 達漢 순평(純平) 純平 파조 또은 충인공파 파조 충의대보조공신 삼중대광 문하성사 문하성사 순평부원군 生1337년卒1392년 6월16일 配고성 이씨 墓장단 우관리 임진강 북쪽 10리라 전하나 실전함 祭享저산서원 父이부상서 도촌 교(嶠) 祖철원군 우(瑀) 曾祖밀직 존비(尊庇) 外祖정당문학 문열공 성산 이조년	9世
	子계종(繼宗) 繼宗 태조 때 자헌대부 판광주목사겸 병마절제사와 원능관학사 配수부인 가음 김씨 墓교하 법흥리 승현 줄봉 아래 임좌 쌍영 유갈 父판사 보손 (寶孫) 祖판사 광병 (光丙) 曾祖전서 계소(繼紹) 外祖우윤 오윤기	10世
	子스조(承祚) 承祚 生1383년卒1435년 11월30일 태종조에 통선랑 사헌부지평 配공인 개성 옥씨 墓상동 상하영 예장으로 유갈하다 父복창군 보(譜) 祖복안후 신(愼) 曾祖광화후 희(熙) 外祖판서 양원격(楊元格)	11世
婿여흥 민호문 閔好問  婿은화 유의 현감 柳誼	子승수(承壽) 承壽 生1383년卒1435년 11월30일 태종조에 통선랑 사헌부지평 配공인 개성 옥씨 墓상동 상하영 예장으로 유갈하다 父복창군 보(譜) 祖복안후 신(愼) 曾祖광화후 희(熙) 外祖판서 양원격(楊元格)	12世

	이 기 필 彌	4世
	子 정 證	5世
	子 은 실 允實	6世
	子 구 球	7世
	子 경 璟	8世
	子 달 한 達漢	9世
	수평군파 파조 충인공파 후이	10世
	子 효 종 孝宗	11世
	子 치 致	12世
	子 손 孫	13世
	子 림 世林	14世
	子 빈 世彬	15世
	子 희 世熙	16世
	子 신 愼	17世
	子 퇴 賚	18世
	子 찬 贊	19世
	子 질 質	20世
	女 봉 석 柱	21世



	이 기 필 彌 子 證	4世
	子 允 實 子 球	5世
	子 景 璟	6世
	子 達 漢 子 孝 宗	7世
	子 師 敍	8世
	子 孟 惇 子 孟 庸 子 孟 和 子 孟 德	9世
	子 孟 彰	10世

이공유기소림 子公弼 惟弼	4世
子正 正	5世
子允 允	6世
子球 球	7世
子璟 璟	8世
子達 達	9世
子漢 漢	10世
子欽 欽	11世
子敏 敏	12世

이공유년 子公弼 惟弼	4 世
子正 証	5 世
추신유년 충숙왕조에 봉수대부 대부소경 상장공단 공부상서 우복야 참지정사 좌복야 子인위 仁渭	6 世
대부경 子복정 復卿 子낙천 祿千 봉의대부 전이판서	7 世
낭장 子응룡 應龍	8 世
령응정 子증화 中和 사제감 子증경 中卿	9 世
소감 子회우 懷佑 녹사 子귀 貴 女최거(崔渠) 교위 부호군 子증유 中儒 子용현 用賢 생원	10 世
	11 世
	12 世

4 世	이공공공공공 子 公 弼 惟 弼	
5 世	子 證 証	
6 世	子 仁 渭	
7 世	子 祿 千	
8 世	子 謹 瑾 판도판서 공파 파조 諡간혜(簡惠)공 봉익대부 판도판서 합천 대야촌에 시거하시다 配 평산군부인 한씨 父 예의판서 희직(希迪) 祖父담위 산자윤 련(璉) 曾祖父서우복야 평수(平壽) 墓합천 서편 고현원에 설단하고 비석을 세워 제사를 모신다 증년에 신도비를 세웠는데 영가 권오익이 찬하다	
9 世	子 世 鳳 鳳 諡강헌(康獻) 봉익대부 판전동시사 墓산가 아현 해좌 비석이 있다 고려 충혜왕 때 태어나서 우왕 원년을묘 1375년 2월 11일 나주목사로 부임하였다 2해 7월 선정을 베풀고 상경하였다는 기록이 호남읍지 나주편 23항에 재록되어 있다 配무진군 부인 노씨 父사제소감 천필(天弼) 墓도침의 정승 증(證) 墓합천 서편 서릉동 경좌 묘지명과 상석이 함께 갖춰져 있다 부군 산소는 증년에 묘갈을 다시 하였는데 성산 이기원이 찬하다	
10 世	子 軫 軫 生1364년 卒1448년 壽85세 조봉대부로 근기소감을 역임하고 증후대부를 제수받다 墓서릉동 묘친묘소 백호등 경좌 지면(誌面)이 있다 配수인 상주 김씨 生1433년 卒1481년 墓대부공묘 아래 경좌 상석이 있다 父판전동시사 간(侃) 祖직제학 증화(仲和)	
11 世	子 汝 忠 忠 성격이 단아하였으며 구원에 은거하였다 학문이 넓고 행동은 조용하였으나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세종 때 통훈대부 도침의사를 제수받고 금산군수를 하였다 配수부인 삼척 정씨 父생원 삼(濶) 墓서릉동 경좌 합영 묘갈은 전주 허유가 찬하다 配수부인 포산 판씨 墓명란으로 실전 父통정 지사원주사 보문각 대제학 종(棕) 祖전리판서 의금부사 거인(居仁) 曾祖父도침의 증포산군 부후(郭后) 아들 4형제를 두었다	
12 世	子 信 信 ↓ 下 子 誠 誠 ↓ 下 子 誠 誠 ↓ 下 子 諡 諡 ↓ 下	

이공유(李公維) 子 유필(維弼) 惟弼	4 世
子 정(正) 証	5 世
子 인위(仁渭) 渭	6 世
子 능천(祿千) 千	7 世
子 근(瑾) 瑾 판도판서 공파 파조	8 世
子 세봉(世鳳) 鳳	9 世
子 진(軫) 軫	10 世
子 여령(汝寧) 汝寧 생1396년 卒1449년 1월28일 1423년 생원 1427년 등제 예문각학랑 사헌부 가필 서장판서 증국에 가서 특별히 황제의 은덕이노 포상과 의대를 받고 귀국하여 사가원 좌정언 지제고 되었 또 호음관 고리 현감을 하 墓서릉동 정좌에 예장하였다 묘갈이 있다 配공인 청사 정씨 卒1434년 4월12일 墓서릉서편 의록 말갈 정좌 父판서 충(衷) 祖사성 사옹(尙恭) 配공인 관옥 김씨 父현감 유(維) 祖전서 남(南雨)	11 世
子 치(絺) 絺 무 후손	12 世
子 규(珪) 珪 下 쪽	
子 찬(瓚) 瓚 下 쪽	
子 심(深) 深 下 쪽	
子 로(瑤) 瑤 下 쪽	

이 고 우 이 자 명 子 ○ 기 필 彌 惟 彌	4 世
子 정 ○ 証	5 世
子 인 위 仁 渭	6 世
子 능 천 祿 千	7 世
子 근 瑾 판도판서 공파 파조	8 世
子 세 봉 世 鳳	9 世
子 진 軫	10 世
현감 子 여 상 汝 祥 사직 子 여 정 汝 禎	11 世
무단 子 병 炳 무단 子 환 煥 무단 子 형 炯 무단 子 조 調 무단 子 겸 謙 무단 子 훈 訓	12 世



	이 기 필 彌	子 仁 渭	子 祿 千	子 世 麟	子 典	子 道 承	子 承 郁	子 克 忠
4 世	惟 彌	子 正	子 祿 千	世 麟	典	道 承	承 郁	克 忠
5 世		証						
6 世		子 仁 渭	子 祿 千					
7 世								
8 世				子 謹				
9 世				증현대부 소부윤 함안 수령으로 나가 다스림에 현저한 업적이 있었다고 함안 지에 수록되어 있다 우왕 병진년에 (1376) 돌아 와서 무오년 (1378)에 돌아가셨다				
10 世				墓합천 남쪽의 대목리 무곡을 좌 묘갈이 있다	女전익(田益) 부사			
11 世				配속부인 00씨	조봉대부 사재소감 증군사직 과의장군 장수 長壽	친사	증부령	하 쪽
12 世					子 義	子 佑	子 祚	子 貞

4 世	이공공공공공 子 尹 弼 惟 弼	유철 이하는 등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참고로 기록을 남긴다 1597년 사성간곡에서 처음 등재
5 世	子 證 証	1736년 병진보에서 처음 등재
6 世	子 仁 渭 仁 殊 소경	子 自 佑 子 仁 陽 女 正 修 女 公 烈
7 世	子 祿 千	女 正 允 宜 보익대부
8 世	女 郭 完 郭 完 전유	女 李 兆 年 문열공 女 白 文 舉 재신 女 辛 用 卿
9 世	子 郭 雲 庇 중랑	女 金 光 佐 女 李 得 芬 女 李 沔 女 李 沔 女 李 沔
10 世		
11 世		
12 世		

<p>이공공(李公恭)  <b>4世</b></p> <p>子 <b>효식(孝執)</b>        구보에는        우보궐        복야로 등재        해동역사        1202년        1월1일        고려가        사재소경        문효식        (門孝執)을        파견하여        정조를        축하하였다        門은 文의        오류로 추정        동국이상국전집        33권 비답에        사공좌복야        문효식이        세번째 치사를        칭한데 대한        의문교서가        수록되어 있다        연안이씨        준호구에        금자광록대부        수사공        좌복야        판삼사로        수록되어 있다        이하 연안 이씨        준호구        기록이다</p>	
<p><b>5世</b></p> <p>子 <b>대륜(大倫)</b>        형부시랑겸        삼사부사</p>	
<p><b>6世</b></p> <p>子 <b>유근(惟瑾)</b>        追封용현대부        지밀직사사        민부전서        상장군</p>	
<p><b>7世</b></p> <p>女 이정공(李靖恭)        문하평리</p>	
<b>8世</b>	
<b>9世</b>	
<b>10世</b>	
<b>11世</b>	
<b>12世</b>	